

〈성령의 능력〉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7/23(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16:6-15

1.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Stop), 가라고 할 때 가는(Go)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목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주십시오.

예상되는 대답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가고 있는 중에 멈추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내려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혹시 ‘멈추라(Stop), 가라(Go) 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하나님의 말씀 이해’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가길 원하시는 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을 뿐 아니라, ②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고 떠난 곳에서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 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내가 실제로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 놓였다면 감옥안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태형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차꼬에 발을 든든히 채웁니다.(24 절)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어찌보면, 복음을 전하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배합니다. 그것도 흠뻑 매를 맞고 난 후, 어둡고 차가운 감옥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어떤 상황에도 예배’ 할 수 있습니까?

3. 감옥안에서의 예배는 결국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결과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내 삶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된 다짐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안에서 예배했을 때, ‘성령의 능력’ 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차꼬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을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가지의 결과들이 초래됩니다.

①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 줍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예배했을 때, 그곳은 최상의 ‘예배장소’ 탈바꿈하게 됩니다.

② 복음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는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적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목원들이 이 세가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해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이나 결단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